

현장체험(국외) 소감문(개인 작성용)

체험 명	해외현장체험학습-메이닝상해가늬		
체험국가 및 기관	중국 상해 및 남경	체험기 간	2017. 01. 06. ~2017. 01. 09.
학과(부)	중국학부	성명	이다예
학번	20131635		

중국은 묘한 중독이 있는 것 같다. 저번 교환학생부터 해서 이번 해외현장체험프로그램까지 중국은 다녀온 후 여운이 깊게 남고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번에 우리 팀이 갈 곳은 상해와 남경이었다. 첫날은 남경에서 출발해 저녁은 상해에서 보냈는데,



상해를 처음 본 느낌은 “화려함, 발전”이었다. 이날 시간이 늦어서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거리와 건물들 그리고 조명까지 더해져 전부 화려하고 빛났다. 야경만 보아도 중국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상해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비가 내려 흐렸고, 남경으로 가는 날 날씨가 개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간 상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동방명주도 밀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안개에 싸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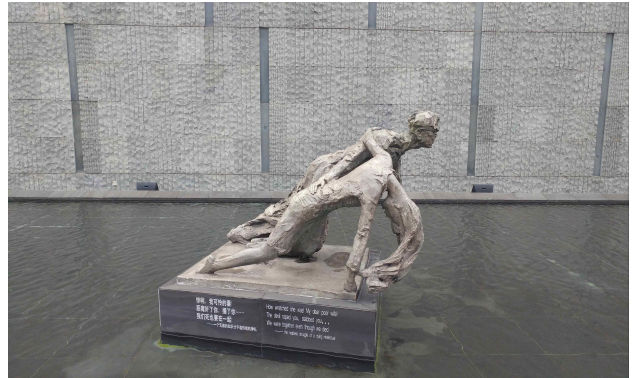
동방명주 안에서 홀로그램과 동영상 등으로 현재 상해의 모습과 미래의 발전한 상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상해는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 줬던 것 같다. 여기서 또 놀랐던 점은 이 높은 탑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층에 도착했으며 그로 인해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들어보니 최고층 전망대까지 40초면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발전한 상해의 한 부분인 것 같다.

상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신천지 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이다. 이곳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아쉽지만, 자세한 사진은 찍어오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에 모태가 되었던 임시정부는 평범한 길 골목에 있으며 계단은 가파르고 공간은 협소했다. 임시정부 주위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했다. 안에는 지도와 사진,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침대와 탁자 등이 있었다. 이곳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상해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니 반대로 남경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중점으로 보기로 했다.

셋째 날에는 남경대학살기념관에 갔는데, 이곳은 안타까우면서도 소름이 돋는 곳이었다. 남경을 침략한 일본군이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강간, 약탈, 방화, 고문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록을 보면 약 30만 명의 민간인과 비무장 군인이 학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985년에 건립되었다. 사진에서처럼 죽은 아이를 꺼 안고 울고 있는 조각상, 도망가는 조각상 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밑에는 설명도 적혀있다. 안쪽에도 조각상과 발자국 등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살이라는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위함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이렇게 기념관 세웠다는 것에 대단함을 느꼈고,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가 생각나기도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부자묘였다. 사진은 부자묘의 복문이다. 이곳은 난징에서 가장 큰 공자사당으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의 ‘공부자(孔夫子)’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상상했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좀 달랐다. 건물들은 전통가옥의 모양이고 야시장처럼 여러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배 타는 곳과 또 다른 입구가 있다. 남경의 옛날 거리를 재현시켜 놓은 곳도 있었다. 부자묘의 첫 느낌은 화려함도 있었지만 뭔가 웅장한 모습도 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도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자묘는 꼭 다시 한 번쯤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써 짧지만 길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끝났다. 내가 몰랐던 중국의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상해에서는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았고 남경에서는 옛 유적이거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힘든 만큼 얻은 것이 많은 체험학습이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상의 만족도와 관련,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프로그램 주제가 흥미로웠다.	5v	4	3	2	1
2)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5v	4	3	2	1
3) 프로그램 일정과 구성은 적절하였다.	5v	4	3	2	1
4)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5	4v	3	2	1
5)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v	4	3	2	1
6) 다음 기회에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5v	4	3	2	1
7) 주변 친구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한다.	5v	4	3	2	1